

효종(孝宗)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독서와 번역

김수영*

1. 머리말
2. 효종의 <삼국지연의> 독서와 번역
3. 효종의 <삼국지연의> 향유의 문화적 의미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의 제17대 국왕 효종(孝宗, 1619~1659)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향유 사실과 그 양상을 처음 밝히고, 그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심익운(沈翼雲, 1734~1782년 이후)이 쓴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仁宣王后御書諺書三國演義跋)의 분석을 통해 이 논문에서 밝힌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종은 국왕 재위 중(1649년~1659년)에 궁중에서 <삼국지연의>를 읽고 그것을 국문으로 번역하였다.

둘째, 효종이 <삼국지연의>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구술하면 왕비 인선왕후(仁宣王后)가 받아쓰고, 때로 궁인(宮人)이 대필(代筆)하여 책이 이루어졌다.

셋째, 효종이 국문으로 번역한 <삼국지연의>는 셋째 딸 숙명공주(淑明公主)에게 하사되었으며, 그 후 숙명공주의 고손(高孫)인 심익운의 집안에 전해졌다.

넷째, 효종이 국문으로 번역한 <삼국지연의>는 심익운이 <인선왕후어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서언서삼국연의발>을 쓴 1763년 6월 16일 당시에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지통속연의’(仁宣王后御書諺書三國志通俗演義)라는 제목으로 제5권부터 제17권까지 총13권으로 존재하였다.

이처럼 효종은 문예적 욕구에 따른 취미로 <삼국지연의>를 읽고 그것을 국문으로 번역하였다. 효종의 소설 향유 과정에 인선왕후와 숙명공주가 함께했다는 사실은, 효종대 왕실의 소설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며, 왕실에서 픽 유연한 태도로 소설을 향유했음을 말해 준다. 통시적으로 볼 때 효종의 <삼국지연의> 향유는 조선 전기 이래 이어져 온 ‘국왕의 소설 향유 문화’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좀더 적극적인 향유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실증적 사례로 여겨진다. 효종이 <삼국지연의>를 직접 번역한 일은 그의 ‘북벌(北伐) 의지(意志)’와 일정 정도 관련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핵심어: 효종(孝宗),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인선왕후(仁宣王后), 심익운(沈翼雲),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仁宣王后御書諺書三國演義跋)

1. 머리말

이 논문은 조선의 제17대 국왕 효종(孝宗, 1619~1659)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¹⁾ 향유 사실과 그 양상을 처음 밝히고, 그 문화적 의미를 고찰

1) 주지하듯이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는 위(魏)·촉(蜀)·오(吳) 삼국의 역사를 바탕으로 창작된 연의소설(演義小說)이다. 원말명초(元末明初)의 소설가 나관중(羅貫中)이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삼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수대(隋代)와 당대(唐代)에 이미 유행하였고, 원대(元代)에는 『전삼삼국지평화』(全相三國志平話)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던바 『삼국지통속연의』(三國志通俗演義)를 나관중이라는 한 개인의 창작으로 보지 않고, 전대의 여러 가지 삼국 관련 서사가 종합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 작품을 일컫는 명칭은 ‘삼국지통속연의’(三國志通俗演義),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삼국지’(三國志), ‘삼국연의’(三國演義) 등으로 다양하나,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널리 통용되어 온 명칭인 ‘삼국지연의’로 일컫는다. 다만 이 논문에서 고찰하는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지통속연의』(仁宣王后御書諺書三國志通俗演義)에 대해서는 논의의 필요에 따라 책의 제목 그대로 일컫는다.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필자는 심익운(沈翼雲, 1734~1782년 이후²⁾)이 쓴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仁宣王后御書諺書三國演義跋)의 분석을 통해 <삼국지연의>를 읽고 국문으로 번역했던 ‘소설 독자’이자 ‘소설 번역가’로서의 효종의 일면을 새롭게 밝혀보고자 한다. 아울러 효종의 <삼국지연의> 향유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심익운(沈翼雲)의 자(字)는 봉여(鵬汝)이고, 호(號)는 지산(芝山)·함경당(盍耕堂)이며,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심익운은 효종의 부마(駙馬)인 청평위(靑平尉) 심익현(沈益顯, 1641~1683)의 고손(高孫)이다.³⁾ 심익운의 문집인 『백일집』(百一集)⁴⁾에는 그의 집안에 전해 온 왕실의 서책(書冊)과 어찰첩(御札帖) 등에 붙인 발(跋)이 몇 편 있는데,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仁宣王后御書諺書三國演義跋)은 그 중 하나이다. 필자는 이 발(跋)의 분석을 통해 효종의 <삼국지연의> 향유 사실과 그 양상을 밝히고, 그 문화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효종의 <삼국지연의> 독서와 번역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仁宣王后御書諺書三國演義跋)은 심익운이 그의 나이 30세 때인 1763년(영조 39) 6월 16일(壬寅)⁵⁾에 쓴 글이다. 이제부터 그 전문(全文)을 분석하기로 한다. 처음 소개하는 자료이므로 단락을 나누어 번역문을 제시하고 그 아래에 원문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2) 심익운의 몰년은 미상이나, 『正祖實錄』 정조 6년(1782) 1월 14일의 다음 기사가 참조된다: “判義禁洪樂性啓言: ‘濟州御史別單中, 州城距船所未滿十里, 如趙貞詰、沈翼雲之逆孽, 締結陸商, 交通京信. 宜移配貞詰於旌義縣, 翼雲於大靜縣.’ 從之.” 이 사실은 박경현, 『심익운의 詩文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2면 참조.

3) 심익운의 생애와 가계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제2장에서 자세히 고찰한다.

4) 『백일집』(百一集)은 심익운이 21세부터 33세까지 창작한 작품을 수록한 문집으로, 그 서문(序文)은 심익운이 34세 때인 1767년에 썼어졌다. 박경현, 앞의 논문, 12~14면 참조.

5) 이하에서 언급하는 날짜는 모두 음력임을 밝혀 둔다.

①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지통속연의』(仁宣王后御書諺書三國志通俗演義)는 제5권부터 제17권까지 합하여 13권으로, 효종(孝宗)께서 궁중에서 한가로우실 때에 친히 번역하시어 구술해 주시고 왕후께서 손수 쓰신 것이다.

(『仁宣王后御書諺書三國志通俗演義』, 自第五卷至第十七卷, 合爲十三卷, 孝廟於宮中燕閑時, 親翻口授, 而后所手書者也)

이 단락은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의 서두이다. 앞 부분에 밝혀져 있듯이 심익운이 발(跋)을 쓴 책의 정확한 제목은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지통속연의”(仁宣王后御書諺書三國志通俗演義)이다.⁶⁾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지통속연의』는 “효종(孝宗)께서 궁중에서 한가로우실 때에 친히 번역하시어 구술해 주시고 왕후께서 손수 쓰신 것”이다. 심익운의 이 기록을 통해 조선의 국왕 효종이 <삼국지연의>를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국문으로 번역까지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효종이 <삼국지연의>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구술하면 왕비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1674)가 손수 받아썼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이 단락을 통해 효종이 <삼국지연의>를 번역한 시기가 효종의 재위 기간인 ‘1649년부터 1659년 사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삼국지연의>의 국문 번역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가와 관련해,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는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의 『서포만필』(西浦漫筆)에 보이는 다음 기록을 주로 참조해 왔다.

지금 이른바 <삼국지연의>라는 것은 원인(元人) 나관중(羅貫中)에게서 나온 것으로 임진(壬辰: 1592년) 이후 우리나라에 성행하여 부너지나 어린아이도 모두 외워 말할 수 있다.⁷⁾

즉, 이 기록을 참조하여 김만중이 살았던 17세기 중후반에 <삼국지연의>의 국문 번역이 민간에 널리 퍼질 정도였음을 대략적으로 추정해 왔다.

6) 다만 책 제목 중에 “인선왕후”(仁宣王后)라는 말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 제목은 효종과 인선왕후 사후(死後)에 후인(後人)이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7) “今所謂『三國志演義』者, 出於元人羅貫中, 壬辰後盛於我東, 婦孺皆能誦說.” 김만중(金萬重), 『西浦漫筆』, 홍인표 역, 일지사, 2004, 384~385면 참조.

따라서 이 단락을 통해 확인되는 효종의 <삼국지연의> ‘국문 번역 시기’(1649년부터 1659년 사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상당히 앞선 시기로 생각된다.⁸⁾

뿐만 아니라 이 단락을 통해 심익운이 발(跋)을 쓸 당시에 “제5권부터 제17권까지 합하여 13권”의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지통속연의』가 심익운의 집안에 전해져 왔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제 다음 단락을 보자.

[2] 연의(演義)의 작(作)은 재판(稗官)에서 나왔으므로 진실로 정사(正史)와 서로 어그러진 것이 많다. 하물며 이것은 언서(諺書)로 번역한 것으로 다만 부인과 여자 아이가 보는 것이니 세교(世教)에 관계되는 바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소열(昭烈)의 제우(際遇)의 성대함⁹⁾과, 무후(武侯)¹⁰⁾가 토벌하고 회복한 의(義)가 천재(千載)의 아래에 소연(昭然)하여, 듣는 자가 비록 어리석은 부인이거나 어린 아이 일지라도 조적(曹賊)¹¹⁾은 반드시 죽일 만함을 알지 못함이 없고, 충(忠)을 실천하고 의(義)를 행하는 뜻을 격동(激動)함이 있게 한다면, 또한 어찌 적은 보탬이겠는가! 성조(聖祖)¹²⁾께서 이 책을 소중히 여기신 것은 그 뜻이 징험되도다.

(演義之作，出於稗官，固多與正史相戾。況此諺翻，只爲婦人女子之觀，似若無所關於世教。然使昭烈際遇之盛、武侯討復之義，炳然於千載之下，聽之者，雖愚婦孺子，無不知曹賊之爲必可誅，而有以激其蹈忠履義之志，則亦豈少補之哉！聖祖之眷眷於是書者，其旨微矣。)

이 단락에는 효종이 ‘정사(正史)가 아닌 ‘연의소설’(演義小說)을 향유한 사실에 대해 옹호하고자 하는 심익운의 해명이 주로 나타나 있다. “연의(演義)의 작(作)은 재판(稗官)에서 나왔으므로 진실로 정사(正史)와 서로 어그러진 것이 많다”는 것은, 조선시대 소설 부정론자들의 주요 주장의 하나로 소설의 ‘비사실성’(非事實性)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에 해당된다. “하물며 이것은 언서(諺書)로 번역한 것으로 다만 부인과 여자 아이가 보는 것이니 세

8) 유승현·민관동, 『朝鮮의 中國古典小說 수용과 전파의 주체들』, 『중국소설논총』 33, 중국소설연구회, 2011, 187~196면 참조.

9) 소열(昭烈)의 제우(際遇)의 성대함: ‘소열’(昭烈)은 유비(劉備)를 말한다. 유비의 묘호(廟號)가 ‘소열제’(昭烈帝)이다. ‘제우’(際遇)는 ‘시운(時運)을 만나다’라는 뜻이다.

10) ‘무후’(武侯)는 제갈량(諸葛亮)의 시호(諡號)이다.

11) ‘조적’(曹賊)은 조조(曹操)를 말한다.

12) ‘성조’(聖祖)는 효종(孝宗)을 말한다.

교(世敎)에 관계되는 바가 없는 듯하다”라는 것 또한 조선시대 소설 부정론자들의 주요 주장의 하나로 이른바 ‘세교’(世敎)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소설을 비판하는 견해이다.¹³⁾ 심익운은 이처럼 18세기 당시 소설 부정론자들에 의해 충분히 제기될 법한 두 가지 비판을 먼저 말한 다음, 그러한 우려를 가질 지도 모르겠으나 <삼국지연의>를 읽으면 “충(忠)을 실천하고 의(義)를 행하는 뜻을 격동(激動)”케 하는 좋은 효용(效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종이 <삼국지연의>를 읽고 그것을 국문으로 번역한 일을 옹호하고 있다.

한편 이 단락 중, “그러나 소열(昭烈)의 제우(際遇)의 성대함과, 무후(武侯)가 토벌하고 회복한 의(義)가 천재(千載)의 아래에 소연(昭然)하여, 듣는 자가 비록 어리석은 부인이거나 어린 아이일지라도 조적(曹賊)은 반드시 죽일 만함을 알지 못함이 없고” 운운한 부분에서 심익운의 <삼국지연의> 독법(讀法)을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국내에 유입된 <삼국지연의> 중국 판본 가운데 가장 널리 유포된 판본은 청초(淸初)에 간행된 『모종강평삼국지연의』(毛宗崗評三國志演義), 일명 ‘모종강평본’(毛宗崗評本)이다.¹⁴⁾ 그런데 ‘모종강평본’은 그 이전에 간행된 여타의 대표적인 판본인 일명 ‘가정본’(嘉靖本),¹⁵⁾ ‘주알교간본’(周曰校刊本),¹⁶⁾ ‘이탁오평본’(李卓吾評本)¹⁷⁾에

13) 심익운과 동시대 인물인 이덕무(李德懋, 1741~1793)는 ‘소설’이 비사실적이고 세교(世敎)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小說有三惑, 架虛鑿空談鬼說夢, 作之者, 一惑也, 羽翼浮誕鼓吹淺陋, 評之者, 二惑也, 虛費膏晷魯莽經典, 看之者, 三惑也. … 其作俑者, 可以加亂民之誅矣. 漢之黨論, 晉之清談, 唐之詩律, 猶有氣節風流之可觀處, 然亡國而害道. 彼小說安可方乎此三者哉!” 이덕무(李德懋), <齋居士識>, 『嬰處雜稿』 권1, 『靑莊館全書』 권5, 한국문집총간 257, 97면.

14) 『모종강평삼국지연의』(毛宗崗評三國志演義), 일명 ‘모종강평본’(毛宗崗評本)은 청초(淸初)에 모윤(毛綸), 모종강(毛宗崗) 부자(父子)가 그 체제를 다듬고 비평(批評)을 새로 가하여 총 60권 120회(回)로 간행한 판본이다.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모종강평본’은 1679년(康熙 18)에 간행된 것이다. 李正學, 『毛宗崗小說理論研究』, 山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5~11면; 민관동, 『<三國志演義>의 國內 流入과 出版』, 『중국문화연구』 24, 중국문화연구학회, 2014, 209면 참조.

15) ‘가정본’(嘉靖本)은 명(明) 가정(嘉靖) 연간인 1522년에 간행된 총24권(卷) 240칙(則)의 『三國志通俗演義』를 말한다. 민관동, 위의 논문, 208면 참조.

16) ‘주알교간본’(周曰校刊本)은 명(明) 만력(萬曆) 연간인 1591년에 간행된 총12권(卷) 240칙(則)의 『新刊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를 말한다. 위의 논문, 209면 참조.

17) ‘이탁오평본’(李卓吾評本)은 이탁오(李卓吾, 1527~1602)가 비평(批評)한 불분권(不分卷) 120회(回)의 『李卓吾先生批評三國志』를 말한다. 같은 논문, 같은 곳 참조.

비해 ‘촉한정통론’(蜀漢正統論)이 강화되고, 조조(曹操)의 악인적(惡人的) 형상화가 뚜렷한 편이다.¹⁸⁾ 이 점에서 심익운의 <삼국지연의> 해석에는 18세기 당시 조선에서 주로 읽혔던 ‘모종강평본’의 시각이 강하게 투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어서 다음 단락을 보자.

㉓ 신(臣)은 증조모(曾祖母) 이씨(李氏)를 그 살아계실 적에 모셨는데, 이씨는 궁중의 일을 익히 아시어 이 책의 본말(本末)을 모두 말씀해 주셨다. 처음에 효종께서 친히 이 책을 번역하실 때 호지(糊紙)¹⁹⁾로 공책을 만드시고, 왕후로 하여금 초(草)를 잡게 하셨으며, 간간이 또한 궁인(宮人)이 대신 쓴 것이 있다. 책이 이미 이루어지자 장차 초(草)를 없애려고 하셨는데 공주께서 얻기를 청하시어 없애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책을 공주에게 하사(下賜)하시니 장황(裝潢)하여 열세 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책은 그 수미(首尾)를 잃었고, 12권 이하부터는 궁인이 대신 쓴 것이 거의 열 가운데 일고여덟은 된다. 그러나 자체(字體)가 같지 않아 모두 변식(辨識)할 만하다는 것이었다.

(臣猶及逮事²⁰⁾臣曾祖母李氏, 李氏知習宮中事, 具道是書本末: 始孝廟親讎是書也, 糊紙爲弓, 俾后起草, 間有亦宮人代書者. 書既成, 將毀草, 以公主請得不毀, 遂以賜之, 蓋裝爲十三卷. 故其書失其首尾, 而自十二卷以下, 宮人所代書者, 殆十之七八. 然字體不侔, 皆可辨識云.)

이 단락에는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지통속연의』의 성립 과정과 서지적 특징이 밝혀져 있고, 그 전수(傳授) 과정을 추정케 하는 실마리가 드러나 있다. 앞부분의 “신(臣)은 증조모(曾祖母) 이씨(李氏)를 그 살아계실 적에 모셨는데, 이씨는 궁중의 일을 익히 아시어 이 책의 본말(本末)을 모두 말씀해 주셨다”라는 언급으로 보아, 이 부분 이하 이 단락의 서술은 모두 심익운의 증조모 이씨가 심익운에게 전한 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심익운의 증조모 이씨는 누구인가? 『靑松沈氏大同世譜(庚辰譜) 1』에 따르면, 심익운의 친부(親父)는 심일진(沈一鎭)이고, 심일진의 친

18) 이은봉, 「<三國志演義>의 수용 양상 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34~38면 참조.

19) ‘호지’(糊紙)는 풀 먹인 종이를 말한다.

20) ‘逮事’는 부모나 조부모가 살아계실 때에 부모나 조부모를 모셨다는 뜻이다. 『예기』(禮記) 「곡례」(曲禮) 상(上)의 다음 구절에서 유래하는 말이다: “逮事父母, 則諱王父母, 不逮事父母, 則不諱王父母.”

부는 심중은(沈重殷)이다.²¹⁾ 심일진은 후사가 없던 심사순(沈師淳)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그런데 심사순의 조부는 신임사화(辛壬土禍)에 연루되어 역모의 죄를 받은 심익창(沈益昌)이다. 그 때문에 심익운은 1759년(영조 35)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낭서직(郎署職)에 발탁되고도 관직에 나아가 뜻을 펼칠 수 없었다.²²⁾ 이에 심일진이 상소(上疏)를 올려 아들 심익운을 위해 이미 작고한 심사순에게서 파양(罷養)되고자 하였는데,²³⁾ 그 일로 심일진 부자(父子)는 ‘신주파양(神主罷養)’을 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다.²⁴⁾ 그러나 2년 뒤인 1762년에 영조(英祖)의 윤허를 받아 심일진은 친부인 심중은의 아들로 복적(復籍)되는 동시에 심정보(沈廷輔)의 손자(孫子)로 입적되었다.²⁵⁾ 심정보는 효종의 부마(駙馬)인 심익현(沈益顯)의 아들이다. 심정보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아내는 정유악(鄭維岳)의 딸인 온양(溫陽) 정씨(鄭氏)이고, 둘째 아내는 이정영(李正英)의 딸인 전주(全州) 이씨(李氏)이다.²⁶⁾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심익운의 증조모 이씨는 심정보의 둘째 아내 전주 이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 21) 『青松沈氏大同世譜(庚辰譜) 1』, 청송심씨대동세보간행위원회, 2002, 891~893면 참조.
- 22) 『英祖實錄』, 영조 35년(1759) 9월 2일자 기사가 참조된다: “吏曹判書閔百祥奏曰: ‘頃有沈翼雲郎署差下之命, 而今方有窶, 臣欲奉行, 至於清宦, 有難奉行.’ 上曰: ‘何故?’ 百祥曰: ‘益昌之孫也.’”
- 23) 『承政院日記』, 영조 36년(1760) 4월 20일자 기사가 참조된다: “出學條輩良曰: ‘近來破養之弊, 尤甚, 而向來沈一鎭上言事, 情所惻然, 日後則防杜其破養之痼弊, 宜矣.’ 百祥曰: ‘一鎭之一家議論, 有瑕疵者, 何以繼後乎云? 以此言之, 則世間, 安有爲後者哉, 又安有人倫哉?’ 金相福曰: ‘翔雲以臨陂遞歸時, 內行入於恩津, 而聞洪述海啓辭, 翔雲之祖母, 因以血書, 翔雲之父一鎭, 又作血書, 其情甚可矜矣.’ 上曰: ‘人倫重, 一定之後, 不可更之也. (….) 今聞沈師淳妻, 沈一鎭之血書陳情, 聞來不覺惻傷, 因一事, 母子有此舉, 卽古所未聞也. 此後父子夫妻之間, 法外此舉, 一切嚴禁, 此等上言, 政院切勿例下, 雖或登聞呈單, 亦令該曹直爲勿.’”
- 24) 『英祖實錄』, 영조 36년(1760) 4월 20일자 기사가 참조된다: “禮曹判書鄭翬良, 陳沈一鎭母子, 以罷養事, 血書呈單, 又陳一鎭子翼雲斫指事, 上曰: ‘翼雲之人物, 足辨斫指, 而一鎭之能辨血書, 誠料外也.’ 右議政閔百祥曰: ‘世豈有神主罷養之事乎?’”
- 25) 『英祖實錄』, 영조 38년(1762) 4월 21일자 기사가 참조된다: “上曰: ‘今覽沈一鎭供辭, 於一鎭之心, 豈不若是? (….) 於一鎭頃者處分嚴重曲盡, 一鎭亦隨本生父, 而奉祀於青平尉、公主, 則人倫團圓. 予旣非爲一鎭, 則一鎭之道, 但當望見寧陵, 隨父後而奉祀於貴主. 何謂隨父, 今繼後卽重殷也. 重殷旣奉祀, 其子何敢辭其後? 其在國體, 更無他例, 此供辭勿施, 一鎭放送, 禮斜卽爲舉行.’”
- 26) 『青松沈氏大同世譜(庚辰譜) 1』, 974면. 온양 정씨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으며, 전주 이씨는 슬하에 아들이 없고, 딸이 둘 있었다. 이 때문에 심일진의 친부인 심중은이 심정보의 양자로 입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제 전주 이씨가 증손(曾孫) 심익운에게 전한 말을 차례대로 검토해 보자. 먼저 “처음에 효종께서 친히 이 책을 번역하실 때 호지(糊紙)로 공책을 만드시고, 왕후로 하여금 초(草)를 잡게 하셨으며, 간간이 또한 궁인(宮人)이 대신 쓴 것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자. 이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효종과 인선왕후의 <삼국지연의> 번역 작업 광경을 얼마간 상상케 한다. 특히 효종이 인선왕후에게 번역문의 기록을 맡긴 점으로 미루어 효종이 이 번역 작업에 적지 않은 공을 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책이 이미 이루어지자 장차 초(草)를 없애려고 하셨는데 공주께서 얻기를 청하시어 없애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책을 공주에게 하사(下賜)하시니 장황(裝潢)하여 열세 권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보자. 여기서 “공주”는 누구를 말할까. 심익운의 증조모 전주 이씨는 숙명공주(淑明公主, 1640~1699)의 며느리이고, 숙명공주는 인선왕후의 셋째 딸이다.²⁷⁾ 그렇다면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지통속연의』가 심익운의 집안에 전해 온 사실로 보아, 이 ‘공주’는 숙명공주일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즉, 효종이 번역하고 인선왕후가 받아적은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지통속연의』 열세 권이 처음에 숙명공주에게 하사되고, 그 뒤 남편인 심익현의 집안에 대대로 전해져 숙명공주의 고손(高孫)인 심익운에게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²⁸⁾ 그렇다면 결국 효종이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지통속연의』를 없앤 것이 아니므로, “책이 이미 이루어지자 장차 초(草)를 없애려고 하셨는데” 운운한 구절은 18세기 당시의 소설 부정론자들을 염두에 두고 심익운이 아화(雅化)해 한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기는 하나, 바로 이어지는 “그 책은 그 수미(首尾)를 잃었고” 운운한 구절을 보면, 실제로 책을 없애려 했으나 숙명공주의 청(請)으로 세초(洗草)를 중단시켜 앞뒤 권이 제외된 중간 부분의 열세 권만 남게 되었을 가능성 역시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둘 중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첫째, “책이 이미 이루어지자”라는 구절로 보아 <삼국지연의>의 국문 번역 작업이 효종의 목표대로 완수되었다는

27) 효종과 인선왕후는 슬하에 아들 하나와 딸 여섯을 두었다. 아들은 조선의 제18대 국왕인 현종(顯宗)이고, 1녀는 숙안공주(淑安公主), 2녀는 숙신공주(淑愼公主), 3녀는 숙명공주(淑明公主), 4녀는 숙휘공주(淑徽公主), 5녀는 숙정공주(淑靜公主), 6녀는 숙경공주(淑敬公主)이다.

28) 조금 뒤에 ④단락을 분석하면서 심익운이 쓴 <열성어찰언서발>(列聖御札諺書跋)을 고찰함으로써 이 점에 대한 논거를 추가로 더 제시할 것이다.

점과, 둘째, 그 책의 수미를 제외한 부분이 “제5권부터 제17권까지”의 분량이라는 점은 분명한 듯하다. 이 두 가지 점으로 보건대, 완질(完帙)의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지통속연의』는 20권 내외로 성책(成冊)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²⁹⁾

다음으로 “12권 이하부터는 궁인이 대신 쓴 것이 거의 열 가운데 일고여덟은 된다. 그러나 자체(字體)가 같지 않아 모두 변식(辨識)할 만하다는 것이었다”라는 부분을 보자. 이 부분은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지통속연의』의 서체(書體)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준다. 만약 앞으로 이 책이 발견된다면, 이 증언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³⁰⁾ 이어서 다음 단락을 보자.

④ 이제 이 책과 어찰(御札)을 함께 간직하고자 하나 이 책에 궁인이 대신 쓴 것이 있는지라, 다만 내실(內室)에 따로 간직하고, 또한 감히 바로 분별하여 실오(失誤)의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혹자는 궁인이 대신 쓴 것은 모두 제거하고 다만 어서(御書)만 보존하고자 했으나, 변별할 때에 만약 한 자(字)라도 틀리면 불경(不敬)함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이에 그 사실을 이와 같이 기록한다.

상(上) 39년 여름 6월 임인(壬寅),³¹⁾ 신(臣)이 배수(拜手)하고 삼가 발문을 쓰다.
(今欲以是書與御札並藏, 然爲其有代書, 只得別藏於內室, 又不敢輒爲分別以犯失誤之罪. 或者, 欲盡去代書, 只存御書, 而辨別之際, 若錯一字, 不敬孰甚焉? 茲記其事實如此云. 上之三十九年夏六月壬寅, 臣拜手謹跋)

이 단락은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의 마지막 단락이다. 앞부분의 “이제 이 책과 어찰(御札)을 함께 간직하고자 하나 이 책에 궁인이 대신

29)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에 언급된 이상의 사실만으로 효종이 읽은 <삼국지연의> 중국 판본이 무엇인지를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모종강평본’이 1679년(康熙 18)에 간행된 것이므로, 효종이 재위 기간(1649~1659)에 읽은 <삼국지연의>는 ‘모종강평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문 번역본 <삼국지연의> 자료에 대한 최근까지의 발굴 성과는 박재연, 『조선시대 <삼국지연의> 한글 번역 필사본의 연구-서울대 규장각본(27책본)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4, 돈암어문학회, 2001, 219~253면; 민관동, 『翻譯本 中國古典小說의 發掘과 成果』, 『중국어문학지』 40, 중국어문학회, 2012, 167~168면 참조.

30) 인선왕후의 서체는 『淑明宸翰帖』에 전하는 53편의 국문 서간과, 『淑徽宸翰帖』에 전하는 16편의 국문 서간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김복순, 『仁宣王后 書簡의 書藝美 研究』(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4~88면에 인선왕후의 서체 분석이 자세히 이루어져 있다.

31) ‘상(上) 39년 여름 6월 임인(壬寅)’은 영조(英祖) 39년인 1763년 6월 16일(壬寅)이다.

쓴 것이 있는지라, 다만 내실(內室)에 따로 간직하고, 또한 감히 바로 분별하여 실오(失誤)의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라는 기록을 보자. 심익운이 앞의 ㉠단락과 ㉢단락에서도 말했듯이,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지통속연의』에는 인선왕후의 어서(御書)와 궁인의 기록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심익운은 어서만 기록된 “어찰”(御札)과, 어서와 궁인의 기록이 섞여 있는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지통속연의』에 차등을 두어 내실(內室)에 따로 보관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심익운이 말한 “어찰”(御札)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백일집』에 실려 있는 <열성어찰언서발>(列聖御札諺書跋)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열성어찰언서발>은, 심익운이 그의 집안에 전해 온 왕실의 국문 서찰을 수합해 만든 어찰첩(御札帖)에 붙인 발(跋)이다. <열성어찰언서발>에 따르면, 당시 심익운의 집안에는 ‘효묘어찰언서’(孝廟御札諺書) 9첩, ‘현묘어찰언서’(顯廟御札諺書) 2첩, ‘장렬왕후어찰언서’(莊烈王后御札諺書)³²⁾ 2첩, ‘인선왕후어찰언서’(仁宣王后御札諺書) 58첩, ‘명성왕후어찰언서’(明聖王后御札諺書)³³⁾ 2첩이 실려 있는 1권의 어찰첩이 전하고 있었다. <열성어찰언서발> 끝부분의 다음 대목을 보자.

오른쪽 3조(三朝)·2성(二聖)·3후(三后)³⁴⁾의 어찰언서(御札諺書)는 1권(卷) 총 73첩(帖)으로 신(臣)의 고조모(高祖母)이신 숙명공주(淑明公主)께서 하사(下賜)하신 것이다. 매 첩의 앞머리에 언서(諺書) 표기(標記)가 있으니 공주께서 손수 쓰신 것이다.³⁵⁾

이 인용문을 통해 첫째, 숙명공주가 인조조(仁祖朝)부터 현종조(顯宗朝)까지 3조(三朝)에 걸친 왕실의 국문 서찰 73첩(帖)을 수합해 만든 1권(卷)의 어찰첩을 심익운의 집안에 주었으며, 둘째, 심익운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심익운의 집안에 그 어찰첩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³⁶⁾ 그런데 <열

32) 장렬왕후(莊烈王后, 1624~1688)는 효종의 부친인 인조(仁祖)의 계비(繼妃)이다.

33)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1683)는 효종의 아들인 현종(顯宗)의 비(妃)이다.

34) ‘3조’(三朝)는 ‘인조조·효종조·현종조’를 가리키고, ‘2성’(二聖)은 ‘효종·현종’을 가리키며, ‘3후’(三后)는 ‘장렬왕후·인선왕후·명성왕후’를 가리킨다.

35) “右三朝、二聖、三后御札諺書，一卷凡七十三帖，所賜臣高祖母淑明公主者。每帖首有諺書標記，公主所手書也。” 심익운, 『列聖御札諺書跋』, 『百一集』.

성어찰언서발>은 1763년 6월 14일에 씌어졌고,³⁷⁾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은 그 이틀 뒤인 1763년 6월 16일에 씌어졌다. 또한 『백일집』에는 <열성어찰언서발>의 바로 뒤에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이 실려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건대 이 단락에서 심익운이 말한 “어찰”(御札)은, 숙명공주가 인조조부터 현종조까지 3조에 걸친 왕실의 국문 서찰 73첩을 수합해 만든 1권의 어찰첩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이 단락 중의 “혹자는 궁인이 대신 쓴 것은 모두 제거하고 다만 어서(御書)만 보존하고자 했으나, 변별할 때에 만약 한 자(字)라도 틀리면 불경(不敬)함이 얼마나 심하겠는가?”라는 부분은 원문에 쌍행협주(雙行夾註)로 씌어져 있다. 이렇게 협주까지 부기(附記)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서는 어서와 궁인의 기록을 사사로이 변별하지 않고자 한 심익운의 신중한 태도가 엿보인다.

끝으로 “상(上) 39년 여름 6월 임인(壬寅),³⁸⁾ 신(臣)이 배수(拜手)하고 삼가 발문을 쓰다”라는 부분을 보자. 이 기록을 통해 심익운이 30세 때인 1763년(영조 39) 6월 16에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이 씌어졌음을 알 수 있다.³⁹⁾

36) 이 지점에서 필자가 앞의 ㉒단락을 분석하면서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지통속연의』가 숙명공주에게 하사되었으리라 추정할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37) “上之三十九年歲次癸未夏六月庚子。臣拜手稽首敬識。” 심익운, <列聖御札諺書跋>, 『百一集』.

38) ‘상(上) 39년 여름 6월 임인(壬寅)’은 영조(英祖) 39년인 1763년 6월 16일(壬寅)이다.

39) 그런데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이 씌어진 시기는, 심익운의 삶과 관련해 좀더 음미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㉒단락을 분석하면서 살폈듯이, 심익운은 26세 때인 1759년(영조 35)에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낭서직(郎署職)에 발탁되었으나, 가문의 문제로 인해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이에 그 부친 심일진(沈一鎭)이 양부(養父)인 심사순(沈師淳)으로부터 과양(罷養)되기를 청했으나, 그 일로 심일진과 심익운, 그리고 심익운의 형인 심상운(沈翔雲) 모두 고초를 겪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인 1762년 4월 21일에 영조의 윤허(允許)가 내려져 심일진은 바라던 대로 심사순으로부터 과양되어 친부인 심중운의 아들로 복적(復籍)되는 동시에 심정보(沈廷輔)의 손자로 입적되었다(앞의 각주 25 참조). 앞에서도 말했듯이 심정보는 효종의 부마인 심익현의 아들이다. 따라서 1762년 4월 21일을 기점으로 심익운은 심익현과 숙명공주의 고손(高孫)으로 인정받은바, ‘역적의 후손’에서 ‘왕가의 후손’으로 극적인 변화를 맞이한 셈이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그로부터 1년여 뒤인 1763년 6월 16일이라는 시점에 심익운이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을 쓴 것은, 그 즈음 심익운 집안의 ‘명예회복’과 일정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심익운은 32세 때인 1765년(영조 41)에 지평(持平)에 서용(敍用)되었다. 그러나 심익운이 42세 때인 1775년(영조 51)에, 그의 형 심상운이 상소문을 써서 당시 왕세손(王世孫)이던 정조(正朝)를 비판한 일로 인해 두 형제 모두 심익현의 후손 자격을 박탈당하는 동시에 서민(庶民)으로 강등되었다. 심상운은

지금까지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의 전문을 단락을 나누어 자세히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새로 밝혀진 효종의 <삼국지연의> 향유에 관한 주요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종은 국왕 재위 중(1649년~1659년)에 궁중에서 <삼국지연의>를 읽고 그것을 국문으로 번역하였다.

둘째, 효종이 <삼국지연의>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구술하면 왕비 인선왕후가 공책에 받아쓰고, 때로 궁인(宮人)이 대필(代筆)하여 책이 이루어졌다.

셋째, 효종이 국문으로 번역한 <삼국지연의>는 셋째 딸 숙명공주에게 하사되었으며, 그 후 숙명공주의 고손(高孫)인 심익운의 집안에 전해졌다.

넷째, 효종이 국문으로 번역한 <삼국지연의>는 심익운이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을 쓴 1763년 6월 16일 당시에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지통속연의’라는 제목으로 제5권부터 제17권까지 총13권으로 존재하였다.

3. 효종의 <삼국지연의> 향유의 문화적 의미

앞 장에서 밝혀진 효종의 <삼국지연의> 향유 양상은 우리의 통념을 깨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선의 국왕이 <삼국지연의>를 읽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국문으로 번역하였다. 게다가 왕비는 손수 받아 썼으며, 공주는 그 책을 간직해 대대로 집안에 전하였다. 이러한 발견에 근거해 볼 때, 효종대 왕실의 소설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사역원(司譯院)에 명하지 않고 직접 번역을 했다는 점에서 효종의 <삼국지연의> 향유는 ‘사적(私的) 향유’로서 문예적 욕구에 따른 취미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효종의 소설 향유는 조선 국왕으로서 이례적인 경우일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선왕조실록』 중 ‘소설’에 관한 기사들은

정조 즉위한인 1777년(정조 1)에 처형되고, 심익운은 흑산도와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생을 마쳤다(박경현, 앞의 논문, 11~12면 참조). 이 점에서 심익운이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을 쓴 일은, 그가 자신의 생애 희망과 기대를 품었던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기의 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여러 차례 고찰되었지만, 이제 ‘국왕’의 소설 인식과 소설 향유에 초점을 두고 다시 읽어보자.

먼저 『세조실록』(世祖實錄) 세조 8년(1462) 1월 1일자 기사를 보면, 세조가 『태평광기』(太平廣記)를 읽고, 양성지(梁誠之)와 함께 그 감상을 나누는 장면이 확인된다.⁴⁰⁾

다음으로 『성종실록』(成宗實錄) 성종 24년(1493) 12월 28일자 기사를 보자.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 김심(金諶) 등이 차자(筴子)를 올려 경상감사(慶尙監司) 이극돈(李克墩)이 『유양잡조』(酉陽雜俎) 등의 책을 번역해 올린 일을 비판하자,⁴¹⁾ 성종이 다음과 같이 전교(典敎)했다.

그대들이 말한 바와 같이 『유양잡조』 등의 책이 괴誕(怪誕)하고 불경(不經)하다면, 국풍(國風)과 『좌전』(左傳)에 실린 것만 모두 순정(純正)하다는 것인가? 근래에 인쇄하여 반포(頒布)한 『사문유취』(事文類聚)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이 실려 있지 아니한가? 만약 인군(人君)이 이러한 책들을 보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고 말한다면, 단지 경서(經書)만 읽어야 마땅하다는 것인가?⁴²⁾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에서 보듯이, 성종은 국왕이라면 “경서만 읽어야 마땅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러면서 국왕이 소설을 비롯한 ‘비정통문학’(非正統文學)을 읽는 것을 우려하는 신하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⁴³⁾

다음으로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연산군 12년(1506) 4월 12일자 기사

40) “上謂梁誠之曰：‘卿知太平廣記?’ 其語『廣記』中之言。誠之啓：‘昔唐宰相蘇瓌、李嶠二兒皆童年，中宗召置於前，賜與甚厚，因語曰：<爾讀書何事最好?> 瓌子頰曰：<惟木從繩則正，后從諫則聖。> 嶠子曰：<斯朝涉之脛，剖賢人之心。> 中宗曰：<蘇瓌有子，李嶠無兒。’ 上笑曰：‘卿可謂因事勸戒者也。’” 『世祖實錄』, 세조 8년(1462) 1월 1일자 기사.

41) “臣等竊惟，帝王之學，當潛心經史，以講究修齊治平之要，治亂得失之跡耳。外此皆無益於治道，而有妨於聖學。克墩等豈不知『雜俎』、『詩話』等書爲怪誕不經之說，浮華戲劇之詞，而必進於上者，知殿下留意詩學，而中之也。人主所向，趨之者衆，克墩尙爾，況媒進者乎?” 『成宗實錄』, 성종 24년(1493) 12월 28일자 기사.

42) “如爾等之言，以『酉陽雜俎』等書爲怪誕不經，則國風、『左傳』所載，盡皆純正歟? 近來印頒『事文類聚』亦不載如此事乎? 若曰人君不宜觀此等書，則當只讀經書乎?” 『成宗實錄』, 성종 24년(1493) 12월 28일자 기사.

43) 민관동, 『朝鮮時代 中國小說로 인한 論爭과 事件』, 『중국소설논총』 22, 중국소설학회, 2005, 85~89면 참조.

를 보면, 연산군이 『전등신화』(剪燈新話)를 읽고 신하들에게 하사한 일이 확인된다.⁴⁴⁾ 또한 연산군 12년(1506) 4월 13일 기사를 보면, 연산군이 중국에 간 사은사(謝恩使)에게 『전등신화』·『전등여화』(剪燈餘話)·『효빈집』(效顰集)·『교홍기』(嬌紅記)·『서상기』(西廂記) 등을 사오라고 명한 일이 확인된다.⁴⁵⁾ 이 기사들을 통해, 소설을 비롯한 서사문학에 대한 연산군의 관심과 애호가 확인된다.

다음으로 <삼국지연의>가 언급된 가장 이른 시기의 실록 기사인 『선조실록』(宣祖實錄) 선조 2년(1569) 6월 20일자 기사를 보자. 잘 알려져 있듯이, 기대승(奇大升)은 <삼국지연의>와 같은 소설 독서의 폐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국왕에 초점을 두고 보면, 기대승의 발언 가운데 <삼국지연의>에 대한 선조의 인식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지난번에 장필무(張弼武)를 인견하실 때 전교(典敎)하시기를 “장비(張飛)의 고향에 만군(萬軍)이 달아났다고 한 말은 정사(正史)에는 보이지 않는데 <삼국지연의>(三國志行義)에 있다고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아니하여 소신(小臣)은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간혹 벗들에게 들으니 허망하고 터무니없는 말이 매우 많다고 하였습니다. (…)⁴⁶⁾

인용문은 기대승의 발언 앞부분이다.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선조가 <삼국지연의>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 확인된다.⁴⁷⁾

이상에서 고찰했듯이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만 참조하더라도 효종의 선대(先代)에 세조, 성종, 연산군, 선조와 같은 여러 국왕들이 소설을 긍정적

44) “下『剪燈新話』曰：‘序云：<不正之君，所好者唯聲色歌舞，而上下相蒙，政治廢弛，國勢不振>豈因聲色歌舞，而國必亡乎？由上下相蒙而然耳。前朝之君，亦有如此者乎？’”『燕山君日記』，연산군 12년(1506) 4월 12일자 기사.

45) “傳曰：‘『剪燈新話』、『剪燈餘話』、『效顰集』、『嬌紅記』、『西廂記』等，令謝恩使買來。’”『燕山君日記』，연산군 12년(1506) 4월 13일자 기사.

46) “頃日張弼武引見時傳教內：‘張飛一聲，走萬軍之語，未見正史，聞在『三國志行義』云。’此書出來未久，小臣未見之，而或因朋輩問聞之，則甚多妄誕。”『宣祖實錄』，선조 2년(1569) 6월 20일자 기사.

47) 참고로 현전하는 선조의 언간(諺簡)에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에게 <포공안>(包公案) 한 짚을 주라’고 한 구절이 보인다. 이 언간은 김일근, 『諺簡의 研究-한글 諺簡의 研究와 資料集成』(건국대학교출판부, 1986), 184면에 수록되어 있다. 홍현성, 『師侯堂이 남긴 낙선재 본 소설 해제의 자료적 성격』, 『장서각』 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202면 참조.

으로 인식하고, 소설을 향유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효종의 <삼국지연의> 향유는 조선 전기 이래 이어져 온 ‘국왕의 소설 향유 문화’를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⁴⁸⁾

그렇기는 하나 효종이 <삼국지연의>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번역까지 한 데에는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주지하듯이 효종은 봉림대군(鳳林大君) 시절인 1636년(인조 14)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의 발발을 겪었다. 그 이듬해인 1637년(인조 15)에는 부친 인조(仁祖)가 청(淸) 태종(太宗)에게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 하는 치욕을 지켜보았다. 1637년부터 1645년까지 8년간은, 형인 소현세자(昭顯世子)와 함께 볼모가 되어 청(淸)에 끌려가 지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체험은 효종이 국왕이 되어 ‘북벌’(北伐)을 강력히 주장하게 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효종이 <삼국지연의>를 애호하여 직접 번역까지 한 일은 그의 ‘북벌’(北伐) 의지(意志), 즉 ‘청(淸)에 대한 군사적(軍事的) 설치(雪恥)’를 희구하는 마음과 일정 정도 관련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효종은 <삼국지연의>가 보여주는 온갖 군사상의 책략(策略)과 군담(軍談)에 남다른 흥미를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제갈량(諸葛亮) 같은 지략을 갖춘 군사(軍師)와 관우(關羽)·장비(張飛)와 같은 충의(忠義)로운 신하들이 유비(劉備)를 도와 간적(姦賊) 조조(曹操)와 맞서는 데 큰 힘이 된 점에 커다란 흥미를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오랜 기간 힘을 쏟아 직접 번역까지 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⁴⁹⁾

48) 그렇다면 효종의 후대(後代)에는 어떠했을까? 영조는 <구운몽>(九雲夢) 등의 소설을 애호하였다(양승민, 『承政院日記』 소재 소설 관련 기사 변증,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269~280면 참조). 그 외에도 효종 후대에 왕가의 상층 남성이 소설을 향유한 사례가 확인된다. 먼저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중국 백화소설(白話小說)의 삽화를 모아 놓은 화첩(畫帖)인 『중국소설회모본』(中國小說繪模本)의 제작을 명하고, 그 서문을 쓴 사실이 참조된다(정병설, 『사도세자가 명해서 만든 화첩: 『중국소설회모본』(中國小說繪模本)』, 『문헌과 해석』 47, 문헌과해석사, 2009, 126~135면 참조). 한편 순조(純祖)의 아들로서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여 후에 익종(翼宗)으로 추존된 효명세자(孝明世子)가 『형세언』(型世言)을 읽은 사실도 참조된다(김수연, 『명말 상업적 규범 소설의 형성과 조선 왕의 독서-규장각본 『型世言』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7, 한국고전문학회, 2015, 41~45면 참조).

49) 이 점과 관련하여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의 2)단락에 보이는 심익운의 다음 해석을 환기해 볼 만하다: “그러나 소열(昭烈)의 제우(際遇)의 성대함과, 무후(武侯)가 토벌하고 회복한 의(義)가 천재(千載)의 아래에 소연(昭然)하여, 듣는 자가 비록 어리석은 부인이거나 어린 아이일지라도 조적(曹賊)은 반드시 죽일 만함을 알지 못함이 없고, 충(忠)을 실천하고

요컨대 효종은 문예적 욕구에 따른 취미로 <삼국지연의>를 읽고 그것을 국문으로 번역하였다. 효종의 소설 향유 과정에 인선왕후와 숙명공주가 함께했다는 사실은 효종대 왕실의 소설 인식이 긍정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통시적으로 볼 때 효종의 <삼국지연의> 향유는 조선 전기 이래 이어져 온 ‘국왕의 소설 향유 문화’를 계승한 것이다. 다만 효종이 직접 번역까지 한 데에는 그의 ‘복벌 의지’와 관련된 특별한 동기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4.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조선의 제17대 국왕 효종의 <삼국지연의> 향유 사실과 그 양상을 처음 밝히고, 그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심익운이 쓴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의 분석을 통해 이 논문에서 밝힌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종은 국왕 재위 중(1649년~1659년)에 궁중에서 <삼국지연의>를 읽고 그것을 국문으로 번역하였다.

둘째, 효종이 <삼국지연의>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구술하면 왕비 인선왕후가 공책에 받아쓰고, 때로 궁인이 대필(代筆)하여 책이 이루어졌다.

셋째, 효종이 국문으로 번역한 <삼국지연의>는 셋째 딸 숙명공주에게 하사되었으며, 그 후 숙명공주의 고손(高孫)인 심익운의 집안에 전해졌다.

넷째, 효종이 국문으로 번역한 <삼국지연의>는 심익운이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연의발>을 쓴 1763년 6월 16일 당시에 ‘인선왕후어서언서삼국지통속연의’라는 제목으로 제5권부터 제17권까지 총13권으로 존재하였다.

이처럼 효종은 문예적 욕구에 따른 취미로 <삼국지연의>를 읽고 그것을 국문으로 번역하였다. 효종의 소설 향유 과정에 인선왕후와 숙명공주가 함께했다는 사실은, 효종대 왕실의 소설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으며, 왕실에서 펴 유연한 태도로 소설을 향유했음을 말해준다. 통시적으로 볼 때 효종의 <삼국지연의> 향유는 조선 전기 이래 이어져 온 ‘국왕의 소설 향유

의(義)를 행하는 뜻을 격동(激動)함이 있게 한다면, 또한 어찌 적은 보탬이겠는가! 성조(聖祖)께서 이 책을 소중히 여기신 것은 그 뜻이 징험되다.”

문화'를 계승한 것이다. 다만 좀더 적극적인 향유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실증적 사례로 여겨진다. 효종이 <삼국지연의>를 직접 번역까지 한 데에는 그의 '북벌 의지'와 관련된 특별한 동기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조선후기에 사대부가의 상층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을 중심으로 소설의 향유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 새로 밝혀진 사실들이 조선후기 상층의 소설 향유 문화와 양상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데 얼마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자료

심익운(沈翼雲), <列聖御札諺書跋>, 『百一集』,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심익운(沈翼雲), <仁宣王后御書諺書三國演義跋>, 『百一集』,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김만중(金萬重), 『西浦漫筆』, 홍인표 역, 일지사, 2004.
김일근, 『諺簡의 研究-한글 諺簡의 研究와 資料集成』, 건국대학교출판부, 1986.
이덕무(李德懋), <齋居士識>, 『嬰處雜稿』 권1, 『靑莊館全書』 권5, 한국문집총간 257.
『靑松沈氏大同世譜(庚辰譜) 1』, 청송심씨대동세보간행위원회, 2002.
『朝鮮王朝實錄』, 한국고전번역원 고전 DB.
『承政院日記』,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DB.

2. 논문

김복순, 『仁宣王后 書簡의 書藝美 研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89면.
김수연, 『명말 상업적 규범 소설의 형성과 조선 왕의 독서-규장각본 『型世言』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7, 한국고전문학회, 2015, 35~63면.
민관동, 『朝鮮時代 中國小說로 인한 論爭과 事件』, 『중국소설논총』 22, 중국소설학회, 2005, 83~112.
민관동, 『飜譯本 中國古典小說의 發掘과 成果』, 『중국어문학지』 40, 중국어문학회, 2012, 159~186면.
민관동, 『<三國志演義>의 國內 流入과 出版』, 『중국문화연구』 24, 중국문화연구학회, 2014, 207~234면.
박경현, 『심익운의 詩文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127면.
박재연, 『조선시대 <삼국지연의> 한글 번역 필사본의 연구-서울대 규장각본(27책본)을 중심으로』, 『돈암어문학』 14, 돈암어문학회, 2001, 219~253면.
양승민, 『『承政院日記』 소재 소설 관련 기사 변증』, 『고전문학연구』 26, 한국고전문학회, 2004, 259~287면.
유승현 · 민관동, 『朝鮮의 中國古典小說 수용와 전파의 주체들』, 『중국소설논총』 33, 중국소설연구회, 2011, 175~205면.
이은봉, 『<三國志演義>의 수용 양상 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169면.

정병설, 『사도세자가 명해서 만든 화첩: 『중국소설회모본』(中國小說繪模本)』, 『문헌과해석』 47, 문헌과해석사, 2009, 126~135면.

홍현성, 『師侯堂이 남긴 낙선재본 소설 해제의 자료적 성격』, 『장서각』 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198~224면.

李正學, 『毛宗崗小說理論研究』, 山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07, 1~189면.

Hyojong's reading and translation of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Kim, Soo-young

This paper aims to reveal for the first time how Hyojong(孝宗, 1619~1659), 17th king of Joseon, enjoyed reading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三國志演義), as well as the cultural meaning of the king's such enjoyment. These aspects were identified as follows through the analysis of *Comment on Queen Inseon's dictation of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in Korean*(仁宣王后御書諺書三國演義跋) by Sim Ik-un(沈翼雲).

First, King Hyojong, during his reign(1649-1659), read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and translated it into Korean.

Second, King Hyojong translated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and dictated it to Queen Inseon(仁宣王后) and court ladies.

Third, King Hyojong-translated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was handed down to his third daughter, princess Sukmyeong(淑明公主), to whose great-great child Sim Ik-un the translation was handed down.

Fourth, King Hyojong-translated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existed in the title of *Queen Inseon's Translation of Romance of the Three Kingdom*, comprising 13 books from book 5 to 17, on June 16, 1763 when Sim Ik-un wrote *Comment on Queen Inseon's Translation of Romance of the Three Kingdom*.

These findings of this study revealed afresh that King Hyojong royal family of Joseon had a very positive perception of novels.

keywords: Hyojong(孝宗),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三國志演義), Queen Inseon(仁宣王后), Sim Ik-un(沈翼雲), *Comment on Queen Inseon's dictation of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in Korean*(仁宣王后御書諺書三國演義跋)

접수일자: 2015. 9. 30.
심사기간: 2015. 10. 1.~2015. 11. 10.
게재결정: 2015. 11. 10.